

## 지니계수 단순비교의 문제점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산출되는 통계청 공식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OECD 평균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나 소득세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지니계수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OECD 국가들도 가계동향조사와 유사한 가계조사자료를 근거로 지니계수를 산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보도는 지니계수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 국제비교이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득세 정산자료는 자료의 성격 상 지니계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 언론보도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의 지니계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으며, 그 결과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 최근 새롭게 계산된 지니계수는 통계청 발표 공식 지니계수보다 훨씬 높다는 언론 보도가 있음
    - 작년에 통계청이 따로 개발한 ‘신(新)지니계수(가계 금융 복지 조사 기반)’는 2012년에 0.353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6위이고 평균치(2010년 0.314)를 훌쩍 넘는 위험 수준이다. (A 언론매체 2014.6.3. 보도)
    - “통계청 통계 대신 국세청의 소득세 정산 자료에 근거해 파악한 지니계수는 0.371로 치솟았다”고 강조했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하위 5위권이다. (B 언론매체 2014.6.3. 보도)
  -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한국의 지니계수>

| 구 분              | 지니계수  | 기준 자료     |
|------------------|-------|-----------|
| 공식 지니계수 (통계청)    | 0.307 | 가계동향조사    |
| 신(新)지니계수 (통계청)   | 0.357 | 가계금융·복지조사 |
| 소득세 정산자료 기준 지니계수 | 0.371 | 소득세 정산자료  |

자료: 통계청, 각종 언론보도

- 이러한 언론보도는 기초자료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국제비교를 시도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를 과대평가할 오류 가능성이 큼
  - ‘신(新)지니계수’는 기준 소득 정의의 차이로 인해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지니계수보다 높을 수밖에 없음
    - 공식 지니계수의 기반이 되는 가계동향조사의 기준 소득은 순수익에서 향후 채투자, 저축 등 유보분을 제외한 가구전입소득을 기준
    - 신(新)지니계수에서는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내부 유보는 순수익으로 간주
    -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규모가 클수록 채투자나 유보금 등이 영세 자영업자보다 많기 때문에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신(新)지니계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음
  - 소득세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한 지니계수 역시 소득세 정산자료의 특성 상 통계청 발표보다 높을 수밖에 없음
    - 소득세 정산자료는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고소득층 소득 누락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니계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음
    -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 보고 가능성 또한 지니계수가 높아지도록 작용
  - 새로운 지니계수와 기존 OECD 발표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기준자료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큼
    -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우리나라 가계동향조사와 유사한 가계조사자료를 근거로 지니계수 작성
      - ※ 호주(Survey of Income and Housing), 캐나다(National survey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프랑스(National Survey), 일본(Survey on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뉴질랜드(Household Economic Survey), 영국(National ONS series) 등
    - 신지니계수는 내부유보를 포함하는 소득을 근거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지니계수의 수준을 비교하기 전에 OECD 국가들과의 기준 자료 차이를 엄밀히 비교할 필요
    - 소득세 정산자료를 활용한 지니계수를, 가계조사자료에 근거한 OECD 발표 지니계수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큼